



대한축구협회

1. 사례

박주영은 소속팀에서의 출전 경기 수가 적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팀에 발탁됐다. 홍명보 감독은 2013년7월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할 때부터 "소속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해 기량을 인정받은 선수를 뽑는 것을 대표 발탁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월드컵 대표팀 선수명단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항간에는 "박주영이 홍명보 감독과 같은 고려대 출신의 선수라 뽑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축구팬들도 있어 그 여파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의 발탁에 대해 해외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폭스 스포츠'는 "박주영의 발탁 여부는 최근 한국의 심각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며 "그 이유는 박주영이 2011년 8월 아스널로 팀을 옮긴 이후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박주영은 아스널 이적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식 경기에서 총 2경기 출전에 그쳤고, 월드컵 직전 시즌에도 아스널에서 한 경기, 임대 이적한 왓포드(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2경기 출전에 그쳤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하듯 소속팀에서 경기 경험을 쌓지 못하면서 월드컵 출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국내 언론의 우려 속에서 박주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박주영은 지난 3월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뽐으며 기대에 화답했다.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을 대체할 공격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박주영은 월드컵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며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¹ 본 사례연구는 2014년 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의 지도하에 박소현, 신유나, 이동근, 윤신호, 최영우가 작성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음.

2. 역사 및 사업 영역

1928년 5월 22일, <대한축구협회>의 전신에 해당하는 <조선심판협회>가 창립되었으며, 5년 후 <조선축구협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종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일본의 침략정책 하에 1938년 강제 해산되었다. 1945년 해방에 맞추어 <조선축구협회>가 다시 복원되었고,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4일 오늘날의 명칭인 <대한축구협회>로 명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축구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를 대중 속에 널리 보급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양성, 축구를 통한 국위 선양을 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hibit 1)

3. 협회장

1933년 회장으로 취임한 박승빈을 중심으로 제 1대 집행부가 꾸러졌다. 이후 매 집행부마다 한국축구협회는 회장부터 부회장, 전무까지 구성인원의 잦은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1978년 제 38대 집행부의 회장을 맡았던 박준홍까지 이어졌다. 1983년에는 실업축구로 진행되던 한국의 성인 축구리그가 정부 주도로 프로화되면서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정몽준은 1993년 제 47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2005년까지 직위를 연임하였다. 현대중공업의 회장 출신이었던 그는 협회 취임 당시 현대중공업의 고문이자 학교법인 현대학원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제 14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자금을 지원하고 협회 내부의 의사결정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기존 협회장과는 달리 그는 여러 공약들을 제안하면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는 여자축구의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자축구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은커녕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실업축구단에 이르기까지 여자 축구단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축구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전세계를 무대로 남성 축구선수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내 최초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축구단까지 이어지는 여자 축구단을 설립하였고, 창단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17세 여자 축구 대표팀이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밑바탕에는 이러한 그의 지원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경기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41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FIFA 부회장 활동을 병행하면서 월드컵 유치에 앞장섰다. 그 결과 1996년에 2002 FIFA 월드컵의 한국, 일본 공동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비록 정몽준은 협회 내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한

편으로는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년 동안 축구 협회의 회장직을 연임하던 그에 대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인 겸 정치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 축구를 이용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나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그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축구계에서 점차 논란이 가열되자 그는 2009년 퇴임을 결정했다.

2009년에는 조중연이 회장직에 올랐다. 그는 울산현대호랑이 프로축구단 출신으로 1993년 정몽준이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기술위원회 이사로 선발되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정몽준의 큰 신뢰를 바탕으로 전무이사과 부회장, 그리고 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정몽준의 사촌인 정몽규가 2013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대자동차의 회장 출신인 그는 취임 이전에 울산 현대 호랑이, 전북 현대 다이노스,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축구 협회 내 입지를 다졌다. 2011년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총재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슈가 되었던 승부조작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회장직으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FIFA 클럽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 아시아축구연맹 특별위원회 위원, 동아시아 축구연맹 회장 등 축구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4. 조직구성 (Exhibit 2, 3)

대한축구협회의 52대 집행부는 2013년 1월을 시작으로 명예회장 정몽준을 비롯하여 회장 정몽규 그리고 부회장 5명과 그 외 1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7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이사회와 4개부서 1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9명의 총 간부 구성 중 13명이 현대기업 출신의 경영전문가가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었다. 협회의 구성 초기, 스포츠계의 인사들로만 구성된 축구협회는 국제적인 대외 활동이나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일선 전문가들과 전문 경영진 사이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협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재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하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한다.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위원회>

대한축구협회는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에 협회 내 기능을 배분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타 분과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둘 수 있으며,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6인 내지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기 위원회는 각종 경기운영을 지원하고, 경기 결과의 분석, 평가를 통해 경기 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기술위원회는 축구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대표 급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 양성, 기술분석 등을 통한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양성, 배정, 감독 및 상벌 건의와 기타 심판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징계위원회는 축구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경기규칙을 포함한 규정 위반이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축구 기강을 유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의무 위원회는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의무지침을 마련하고, 의무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정몽준 회장이 임기 중에 있던 2006년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대외협력국, 홍보국, 기획실, 총무부 등 대한축구협회의 9개 부서 중 5개 부서를 축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현대중공업 및 대선캠프 출신의 인사들이 장악했다. 29명의 부서 간부들 중 현대 출신의 간부는 무려 13명에 달했고, 축구협회에서 상훈 추천이나 해외 연수 등의 추천기회가 있을 때에도 일반 직원들 보다는 현대 또는 대선캠프 출신의 인력들이 혜택을 받았다.

<유소년 위원회>

축구협회의 재정은 스폰서, 광고, TV중계료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충당한 재정 중 상당한 액수를 유소년 발전과 코치 양성에 쓰는 등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협회의 재정을 위해 선수들의 포상금을 다시 회수해가는 다른 스포츠협회들과는 달리 성과에 따라 선수들에게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몇 안 되는 협회다.

특히, 유소년 발굴 및 지원에서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수익금 중 60% 정도를 유소년 육성에 투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축구협회 1년 예산 중 1/4, 대략 250 ~ 300억원 가량이 유소년 육성에 쓰인다. 국내 야구와 농구 등 인기스포츠의 유소년 층이 점점 얇아지는데 비해 축구는 유소년 선수 층이 두꺼워지고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소년들의 축구를 지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사회>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의장하며 상근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사회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들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회 내에서 회장의 역할과 권한은 절대적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으로써 원칙상 연 4회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를 소집해 협회 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과 결산, 규정의 제정이나 변경 등 협회 전반에 걸친 운영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재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5. 갈등

이은성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2002년 11월 정몽준 회장의 대선출마 선언 당시 “대선에 나서려면 축협 회장 자리를 축구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축구지도자 1백50명의 서명을 받아 그 중 52명의 명단을 공개한 ‘서명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의견조율 과정 없이 당사자들에게 자격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의 근거로는 협회 상벌 규정 제9조 1항 ‘협회 또는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징계할 수 있다’였다.

신문선 축구해설위원은 조중연(당시 전무, 51대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자신이 그 동안 축구 계에서 축구협회 집행부와 갈라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93년 12월 정몽준 회장 측에서 월드컵 본선진출 격려금을 축구발전기금에서 주려고 했으나 당시 축협 이사였던 내가 적극 반대해 무산됐고, 그 이후 나는 협회장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축출당했다. 그 돈은 '86멕시코월드컵 때 FIFA가 협회에 준 것으로, 국내 축구 저변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였다. 응당 축구인 이라면 이에 반대했어야 옳지만 결국 조중연은 정몽준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

6. 국가 대표 감독 선발

기술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각급 대표팀, 선발팀, 상비군 등의 지도자 선발을 위한 추천 및 자문과 지도자 양성 방안의 수립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절차적으로 국가 대표 감독의 선발은 기술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그러나 기술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선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폐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자가 맡게 된다. 그 구성원 역시 회장이 위촉하는 6인 내지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러진다. 즉, 기술위원회는 이사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드보카트 감독 영입도 기술위원회 등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현대 중공업 출신의 가삼현 대외협력국장의 주도로 정회장- 조 부회장 - 노 전무 - 이희택 기술위원장 - 강신우 부위원장 정도의 수직 직계라인만 관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전언 (2005)

내부 고발자의 전언에 따르면 감독 영입에 있어 어떠한 축구인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현대맨들과 고위직 관리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감독 인선의 경우 13년간 16명의 대표팀 감독이 등장할 정도로 주먹구구 식이었으며, 국민의 여론만 살피는 정치적 행정으로 일관하였다.ⁱⁱ

7. 국가 대표 선수 선발

국가 대표 선수 선발은 정관의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에 명시되어 있는데, ‘각급 대표 선수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다.’고 되어있다. 즉 감독의 재량으로 안을 건의하면, 이차적으로 기술위원회의 추천과 자문을 거쳐 선수를 선발한다. 그러나 그 근거자료와 체계화된 기준이 부재하며, 선출된 선수의 능력에 대한 의문도 여러 번 제기되었다.

2010년 6월 17일 남아공월드컵 B조 2번째경기 한국-아르헨티나 경기에서 허정무 감독은 차두리 대신 오범석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아르헨티나의 노련한 경기 흐름에 끌려가다 4대1로 대패했다. 이에 대해 허정무 감독이 차두리를 빼고 오범석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배경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차두리를 빼고 오범석을 투입시킨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그 경기에서 박주영의 자책골과 이과인 헤딩골이 모두 오범석의 반칙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범석의 아버지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국 내셔널리그 이사이자 허정무 감독과는 연세대 동문인 것이 알려지면서 학연·지연에 얽매어 허정무 감독이 차두리 대신 오범석을 투입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허 감독은 ‘믿고 기다려 달라’ 라는 말과, 오범석의 기용 이유에 대해서도 ‘차두리와 오범석은 둘 다 장, 단점이 다르다.’ 는 말만 남겼을 뿐, 뚜렷한 선발 기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 이전에도 국가대표 전 감독이 국가 대표 선발 과정에 대해 언급한 사건이 있었다. 조광래 전 국가대표 감독은 1년 5개월간의 감독생활을 끝으로 2011년 12월에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경질되었고 후에 인터뷰에서 축구협회의 외압에 대해 폭로하였다.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지만 외압은 존재했습니다. 선수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협회 수뇌부에서 한 선수의 대표팀 발탁을 요청했습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권한이지만 상부의 애기여서 나 또한 차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 그 선수를 뽑지 않은 후 축구협회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고 이후에는 협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협회 수뇌부는 조중연 회장을 비롯해 이회택 노홍섭 부회장이었으며, 추천한 선수는 K-리그에서 뛰는 수도권 모 구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감독은 수뇌부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조 감독은 이후 축구협회 수뇌부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8. 끝맺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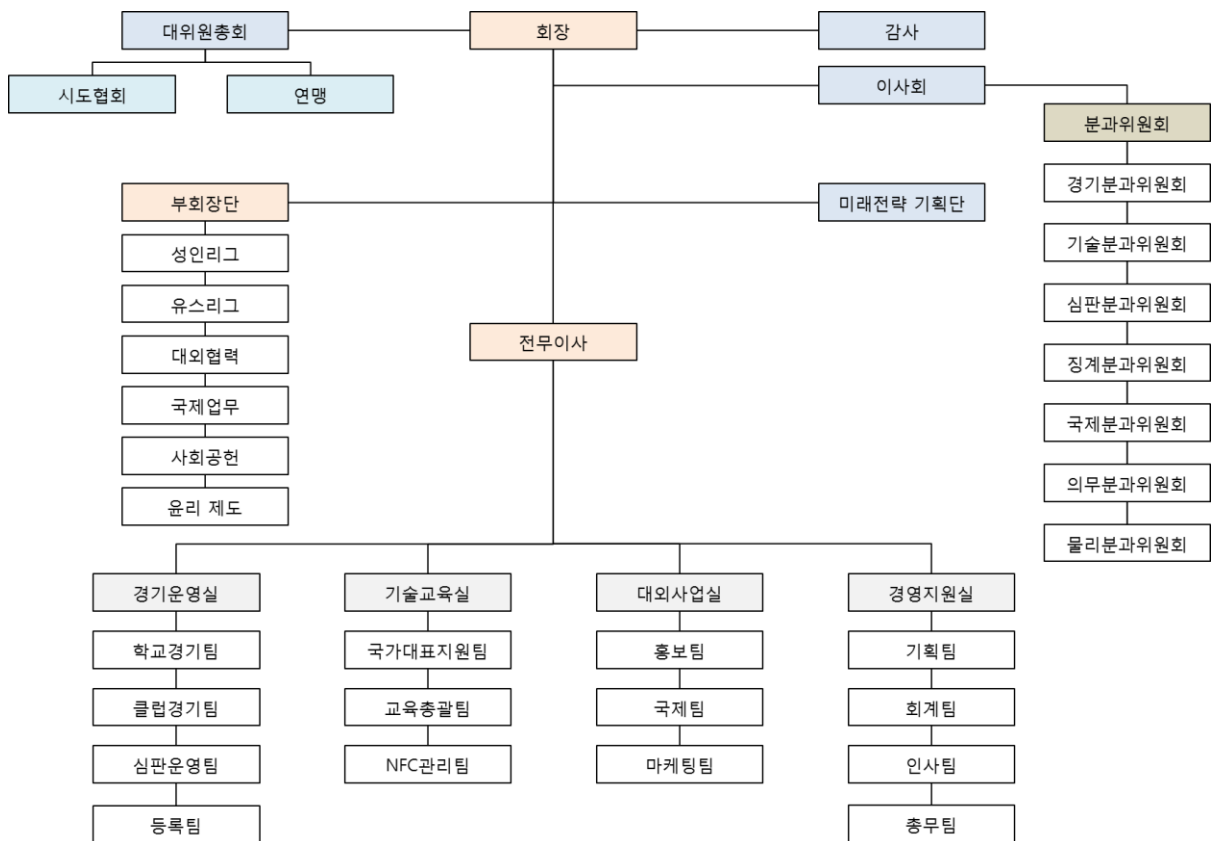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의 모든 스포츠 협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축구협회 예산 928억 중에 국고 보조금은 1억 1천만원에 불과하지만 공식협찬비용, 중계권료, 입장수익, 월드컵 배당금이 548억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스폰서로, 축구협회는 지난 2012년 초 나이키 코리아와 2019년까지 8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8년간 후원 금액은 1200억원(현금 600억원·현물 600억)에 이른다 (Exhibit 5). 국내 스포츠 협회 후원 중 최대 규모다. 이에 반해, 대한농구협회는 2001년까지 휠라의 후원을 받았지만 2002년에는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02년 한국농구가 부산아시안게임에서 20년만에 금메달을 따면서 나이키의 후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는 17억3578만원에 불과하였고, 현재는 주로 물품지원에만 한정되어 축구협회의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축구협회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그 실적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의 또 다른 인기스포츠 야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INPUT 대비 OUTPUT이 적다는 점은 국내 축구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관계자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따라서 축구협회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hibit 1. 축구 소개

양편이 대항하는 구기 종목의 하나로, 발을 사용하여 볼을 다루고 골을 다투는 대표적인 팀 스포츠이다. 축구는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로 볼을 다룰 수가 있으므로 경기 기술이 다양하고, 많은 양의 달리기가 필요한 경기이다. 또한 경기 상황이 매 순간 새로우므로 선수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게임을 펼쳐 나가야 한다. 드리블, 슈팅, 패스, 트래핑 등의 기술을 연마 하면서 민첩성, 협응력 등을 양성할 수 있고 격렬한 게임을 통해 강한 지구력과 투지를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 스포츠로서 자신만의 독자적 노력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 협동심, 책임감, 단결심, 희생정신 등의 사회성 육성에 도움이 된다.²

Exhibit 2. 대한축구협회 조직도



² 축구, 네이버 지식백과, 2008

Exhibit 3. 대한축구협회 임원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대표)학력
회장	정몽규	(주)현대산업개발 회장	고려대학교
부회장	허정무	목포국제축구센터 고문	연세대학교
	최순호	FC서울 미래기획단장	광운대
	김동대	울산 현대 축구단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유대우	육군협회 사무총장	육군사관학교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세대학교
전무이사	안기현	(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인천체육전문대
이사	조병득	(전) 전북, 전남, 수원 축구단 골키퍼 코치	명지대학교
	정혜성	SPOTV+ 축구 해설위원	고려대학교
	곽영철	법무법인 총정 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
	홍은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박경훈	제주 유나이티드 FC 감독	한양대학교
	임영진	경희대학교 병원 병원장	연세대학교
	신연호	단국대학교 축구부 감독	고려대학교
	이미연	부산 상무여자 축구단 감독	울산과학대
	오근영	FC 안양 단장	충주대학교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국체육대학교
	전경숙	여자축구연맹 부회장	연세대학교
	김기복	한국실업축구연맹 부회장	중앙대학교
	감사	서정복	(전) 전남축구협회 회장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서울대학교

Exhibit 4. 대한축구협회 규정(일부 발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각급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표단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

각급 대표선수(이하 "선수"라 한다.)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다.

제5조(대표단의 구성 및 인원)

① 각급 대표단은 협회가 필요시 선임한 단장과 감독, 코치, 선수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② 각급 대표단의 선수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증감을 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50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① 각급 대표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기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협회는 ①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각급 대표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전임으로 선임할 경우 전임계약을 체결한다.

④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대표단에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단장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으로서의 능력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지도자의 책무)

① 단장은 해당 대표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급 대표단의 감독, 코치 등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 소집 대상 선수의 추천
2.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선수의 상벌, 경기력,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
4. 각종 국내·외 참가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
5. 기타 대표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의 건의

제14조(보고서)

① (감독보고서) 대표단의 감독은 대회 또는, 경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독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분석보고서) 기술위원회는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기술위원을 파견하고, 기술위원은 대회 및 경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항 및 ②항의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술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포상)

① 각급 대표단의 지도자 및 선수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 포상 규정에 의한다.

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표단의 운영 및 조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2.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한 자
3. 선수의 훈련 및 관리에 전념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
4. 평소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력이 뛰어나며, 대표단의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인 자

제16조(징계)

① 각급 대표단의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협회 징계 규정에 의한다.

② 징계 양정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는 징계의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상정한다.

1.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대표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3조(회장의 선출), 제80조(시행세칙)에 따라 협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함)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선거사무관장)

회장 선거사무는 협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제 6 조(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정관 제23조에 따라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hibit 5. 대한축구협회 단체별 예산 규모

대한축구협회 단체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단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평균
대한축구협회	45,515.7	51,737.8	46,024.1	70,397.2	53,418.7
프로축구연맹	11,302.0	11,516.0	10,772.0	20,840.0	13,607.5
시·도 축구협회(합계)	5,796.0	5,532.0	7,238.0	5,892.0	6,114.5
시·도 축구협회(평균)	362.3	345.8	452.4	368.3	382.2
대학축구연맹	772.0	953.0	1,134.0	1,095.0	988.5
유소년축구연 맹	577.0	869.0	1,199.0	1,380.0	1,006.3
중등축구연맹	705.0	730.0	1,082.0	1,019.0	884.0
여자축구연맹	441.0	677.0	723.0	931.0	693.0
실업축구연맹	320.0	560.0	750.0	740.0	592.5

대한축구협회 단체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단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평균
고등축구연맹	495.0	684.0	852.0	1,040.0	767.8
합계	66,286.0	73,604.6	70,226.5	103,702.5	78,454.9

ⁱ 조직 및 재정회계 구조 분석을 통한 축구협회 개혁 방안 : 축구행정 선진화와 한국 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광철 [공저] 논문에서 발췌

ⁱⁱ 조직 및 재정회계 구조 분석을 통한 축구협회 개혁 방안 : 축구행정 선진화와 한국 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광철 [공저] 논문에서 발췌